
	<h1>보 도 자 료</h1>			
	보도	배포즉시	배포	
담당부서	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	문의	정규일 부장(051-662-2060, 02-3774-4160) 이상균 팀장(051-662-2071, 02-3774-9315)	

제 목 : 한국거래소, 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2023년 핵심전략 발표

-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'23.1.31(화)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「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」을 발표
 - 손 이사장은 발표에 앞서 “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낡은 생각과 해법은 통하지 않으며, 단기적 응급처방보다는 긴 호흡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체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”고 밝힘
 - 이어 한국거래소가 목표하는 시장의 모습인 ▲프리미엄 시장 ▲역동적인 시장 ▲신뢰받는 시장 ▲효율적인 시장으로 4대 미션을 제시하고, 미션 달성을 위한 12대 역점과제를 설명

< 한국거래소 4대 미션 및 12대 역점과제 >

① **프리미엄 시장 도약을 위해 한국증시 저평가를 극복**

-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**깜깜이 배당 지급 관행***, **외국인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고, 영문공시 확대****, **파생상품 개장시각 조기화** 등을 추진

* (현행) 先 배당기준일 後 배당금액 확정 → (개선) 先 배당금액 後 배당기준일 확정

** 상장법인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: ('24년~) 자산 10조원이상 코스피 상장사
('26년~) 자산 2조원이상 코스피 상장사

-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글로벌 동향에 맞게 구체화하고, 거래소 자체의 「KRX ESG 경영체계*」도 구축하여 ESG 경영생태계 확산에도 앞장

*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 정보공개 확대, ESG 경영위원회 설치 등

- 우리 시장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 규제 및 인프라의 국제기구 인증을 확대하고, 지난주에 가동한 차세대시스템인 EXTURE 3.0을 통해 IT인프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

② 역동적인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

- ATS 경쟁에 대비해 매매제도 및 인프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상장되어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증권시장을 개설하여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
- 미래성장엔진 인큐베이팅을 위해 「코스닥 글로벌」 세그먼트 육성을 지원*하고, 표준기술평가모델**을 시행하며, 중소기업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「원스탑 온라인 지원 플랫폼」도 구축

* 세그먼트 편입기업 엑스포 개최, ESG 우수기업 간담회 등

** 산업별·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중점 평가항목, 평가등급 정의 명확화 등 반영

- 코로나 기간 자본시장의 버팀목이 되어준 개인투자자를 적극 포용하기 위해 시장조성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, 파생상품 시장에서 자체 야간시장과 투자자 맞춤형 보호체계* 도입을 추진

* 투자자의 투자경험, 재무현황, 상품 위험성 등을 고려한 보호체계

③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
- 무차입공매도 혐의 적발 기간 단축, 사회적 이슈 적시대응, 불공정 거래자 시장참여제한* 프로세스 확립으로 불공정거래 철저히 근절

*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는 최장 10년간 신규거래 및 계좌개설 제한

- 공모주 상장일 주가의 가격제한 범위를 확대*하고, 기업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간 균형감 있는 실질심사 프로세스 마련

* 상장일 가격변동 범위를 공모가격의 60~400%로 확대

- 24시간 청산체계 준비 등 CCP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, 초장기 국채선물, 주식선물·옵션 등 신규 파생상품을 보급하며, TR 거래정보 보고체계의 국제정합성과 모니터링을 강화

④ 효율적인 시장 조성을 위해 스마트워크 혁신을 가속화

- K-페이퍼리스(Paperless)*, K-웍스(Works)** 등을 도입하며 스마트 워크 시즌1을 마무리한 한국거래소는 올해 시즌2를 준비 중

* Paperless 보고 솔루션, ** 협업 편의성 및 소통 촉진을 위한 통합 협업플랫폼

- 시즌2에서는 데이터는 “쌓아두는 것”이 아니라 “활용하는 것”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바텀업(Bottom Up) 방식의 업무혁신 추진 예정

- 올 해 시장관리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개편한 거래소는 잠재리스크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훈련으로 비상상황에 적시 대응

- 신설된 글로벌 전담 조직을 통해 글로벌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, 지난 해 창단한 “KRX탁구단”을 활용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

□ 마지막으로 손 이사장은 “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, 짜임새 있는 액션 플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, 시장참여자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자본시장의 “넥스트 노멀(Next Normal)”을 주도해 나가겠다”고 밝힘

<붙임> 『자본시장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한국거래소 핵심전략』 발표자료